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및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

박소영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Relationship Between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ti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So-Young Pak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요 약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역량은 간호제공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및 다문화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생 148명이며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및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비판적 사고성향($\beta=0.27$, $p=.005$)과 자아성찰($\beta=0.21$, $p=.040$)이 문화적 역량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문화적 역량의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해서 자아성찰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을 융합적으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시 포함할 것과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좀 더 탐색하여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는 연구 수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문화적 역량,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성찰, 다문화 경험

Abstract As Korea has been rapidly transformed to be a multi cultural society, it becomes essential for nursing provider to develop cultural compet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mpact of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multi cultural experience on nursing student's cultural competence. A convenience sample of 148 nursing students was obtained from a university in Gyeonggi Province. Data was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lti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a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a=0.27$, $p=.005$), self-reflection ($\beta=0.21$, $p=.040$) were the most consistent predictors of cultural competence and explained 26.0%.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ulti cultural education program including self-reflection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to explore further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cultural competence and to conduct research for establishment a theoretical model.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ultural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Reflection, Muti Cultural Experience

* 본 논문은 2016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Received 11 October 2016, Revised 30 November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So-Young Pak(Shinhan University)

Email: 09525@shinha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글로벌 시민으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태도, 사고, 행동을 요구한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3월 장기체류 외국인인 총 1,465,005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율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1]. 이러한 변화는 간호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간호 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 및 다양성에 대한 인성과 개방적 태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이는 타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자기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2]. 자기인식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나 자신의 생각 및 감정 등을 탐색해 보는 자아성찰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자아성찰(self-reflection)은 상황에 대한 자각 및 인식을 통해 탐색과 이해로 이어지는 과정[3]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게 하며 문제해결이나 변화를 향한 방향성을 갖게 하여 자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이끌어 낸다. 즉, 자아성찰을 잘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화와 타 문화 간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본질적 인식을 통해 이해와 인정, 공존의 방법 모색에 적극성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틀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반성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며 더 나아가 공생적 삶의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4]. 따라서 다문화 교육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넘어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드리고 이유와 근거에 기초해서 판단하려는 태도를 갖게 하는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5].

비판적 사고는 기존의 전제를 성찰하고, 추론과정을 검토하여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데 초점을 둔 반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6]로, 주체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맥

락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의견을 세우고 피력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지식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5]. 다문화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되돌아 보고 편견을 배제하며 상대방의 소리를 경청함으로써 명백해 보이는 것들도 다양한 맥락에서 다시 고려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과 비판적 사고의 연관성, 상호보완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간호학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관심은 비판적 사고가 간호문제에 대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을 개선시켜 결과적으로 간호 업무 수행능력 향상과 환자간호의 질과 안전을 보장[7]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간호교육 인증 평가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에 비판적 사고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간호대학의 간호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간호대학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80%가 근무 중 다문화 대상자를 만나지만 94%가 다문화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8], 간호대학생의 66%가 실습기간 중 외국인 환자를 만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학사학위과정을 보면 다문화의 이해과목이 전공 선택으로 편제되어 간호대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간호대학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다문화대상자를 접하고 있지만 다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간호사로부터 다문화간호의 역할모델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10].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차이를 의미한다. 간호제공자가 자신만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면 다문화 대상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11]. 따라서 간호제공자는 다문화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 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 가치, 관습, 행동 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2].

간호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문화 역량을 키워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시간 운영, 교수학습 방법, 교사의 수업 부담 등의 한계로

인해 간호대학 교육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다문화 교과목을 편성할 수 없다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강화하거나 교양이나 전공 필수로 배정된 교과목에서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대한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강구하는 등 융복합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사회복지, 교육, 보건 의료 분야의 연구에서 확인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문화 교육 제공 여부 및 횟수, 문화적 경험, 다문화 근무경험, 외국어 구사능력, 직무자율성,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등이 있다[13,14,15,16,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능력, 간호교육의 필수 학습성과 중 하나이자 다문화 사회에서 맥락적 이해를 위해 더욱 확장되어야 할 능력인 비판적 사고성향 및 그 동안 연구를 통해 확인된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및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향후 다문화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및 다문화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자아성찰, 비

판적 사고성향 및 다문화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간호대학 중 편의 표출한 1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48명이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효과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6개를 적용했을 때 146명이 산출되었고, 본 연구의 표본수는 148명으로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먼저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학과장에게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 학과의 협조를 얻어 설문을 배포한 후 수거하였다.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 및 비밀보장, 언제든지 연구철회 가능성, 설문에 대한 사용 목적(연구 자료로만 사용되고 연구종료와 함께 완전 폐기)을 명기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모두 기호화하여 기록 관리하였다. 설문은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0부를 배포하여 총 160부가 회수(80%)되었으며 무응답이 포함된 설문 8부, 부정확한 응답 설문 4부를 제외한 148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 자아성찰(Self-Reflection)

자아성찰은 Hwang[18]이 개발한 자아성찰 척도(Self-Refle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탐색 5문항, 자기이해 5문항, 타인탐색 5문항, 타인이해 5문항으로 4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점수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성찰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8(범주별로 .67 ~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2(범주별로 .78 ~ .85)였다,

● 비판적 사고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19]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7개 하위 영역 총 2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전체 도구의 Cronbach’s alpha값은 .84(영역별 .53 ~ .7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값은 .89(영역별 .59 ~ .81)였다.

● 다문화 경험(Multi Cultural Experience)

다문화 경험은 Ward[20]가 개발한 문화 간 생활 경험 체크리스트(Cross-Cultural Life Experience Checklist, 이하 CCLEC)를 Kum[2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다문화적 교류 8문항, 국외 다문화 경험 5문항, 국내 다문화 경험 5문항, 다문화 교육 3문항, 종교 2문항으로 5개 범주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점수는 ‘없다’는 1점에서 ‘매우 많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Kum의 연구[21]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8(범주별로 .67 ~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5(범주별로 .54 ~ .75)였다.

●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

문화적 역량은 Han 등 [22]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화적 지식 9문항, 문화적 기술 6문항, 문화적 만남 4문항, 문화적 인식 4문항, 문화적 민감성 4문항으로 5개 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점수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1(요인별로 .76 ~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값은 .93(영역별 .82 ~ .90)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셋째,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확인하였다

넷째,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Input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148명 중 85.5%는 여자이고, 평균 연령은 20.70세(±2.93)로 20-24세가 가장 많았다(65.5%). 학년은 1학년이 33.8%, 2학년이 33.1%, 3학년이 20.3%, 4학년이 12.8%였으며 종교는 무교가 52.0%, 기독교 33.8%로 가톨릭과 불교에 비해 많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은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 모두 총 5점 만점에 3.73점(±0.49), 3.43점(±0.42), 2.46점(±0.45), 3.29점(±0.50)이었다. 자아성찰의 하위영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 탐색점수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해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객관성이 3.77점(±0.60)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공정성, 자신감, 건전한 회의성, 지적열정, 체계성, 신중성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경험의 하위영역에서는 다문화 교육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국외경험이나 다문화 교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문화적 인식이 4.08점(±0.56)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적 민감성, 다문화 기술, 다문화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은 <Table 1>와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성찰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성별, 연령, 학년, 종교와 같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다문화 경험에서는 종교, 다문화 역량

<Table 1> Differences in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lti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8)

Categories	n(%)	Self-reflection M±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SD	Multi cultural experience M±SD	Cultural competence M±SD
All	148	3.73±0.49	3.43±0.42	2.46±0.45	3.29±0.50
Gender					
Male	21(14.2)	3.68±0.46	3.50±0.38	2.42±0.45	3.23±0.46
Female	127(85.8)	3.74±0.49	3.42±0.42	2.47±0.45	3.30±0.51
t (p)		-0.55(.583)	0.77(.443)	-0.44(.664)	-0.63(.529)
Age					
< 20 ^a	46(31.1)	3.77±0.40	3.40±0.35	2.35±0.42	3.44±0.50
20~24 ^b	97(65.5)	3.71±0.53	3.45±0.45	2.50±0.44	3.25±0.50
≥ 25 ^c	5(3.4)	3.84±0.39	3.38±0.36	2.53±0.73	2.89±0.28
F (p*)		0.32(.725)	0.21(.811)	2.67(.073)	4.15(.018) c<a
Grade					
1 ^a	50(33.8)	3.70±0.45	3.42±0.38	2.40±0.42	3.33±0.44
2 ^b	49(33.1)	3.78±0.51	3.49±0.36	2.47±0.49	3.40±0.54
3 ^c	30(20.3)	3.75±0.43	3.32±0.46	2.53±0.27	3.08±0.49
4 ^d	19(12.8)	3.68±0.62	3.50±0.54	2.50±0.62	3.23±0.48
F (p*)		0.34(.794)	1.25(.293)	0.60(.613)	2.93(.036) b>c
Religion					
Christianity ^a	50(33.8)	3.66±0.37	3.43±0.36	2.33±0.38	3.37±0.48
Catholic ^b	15(10.1)	3.98±0.54	3.61±0.57	2.71±0.49	3.59±0.45
Buddhism ^c	6(4.1)	3.83±0.60	3.32±0.57	2.68±0.17	3.13±0.28
None ^d	77(52.0)	3.65±0.52	3.40±0.40	2.48±0.47	3.20±0.51
F (p*)		2.20(.091)	1.22(.304)	3.49(.018) b>a	3.56(.016) b>c,d

*Scheffe test

에서는 연령, 학년,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 경험에서는 가톨릭 종교를 가진 학생이 기독교 종교를 가진 학생에 비해 다문화 경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에서는 20세 이하가 25세 이상인 군에 비해 높았고,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높았으며 종교적으로는 가톨릭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불교나 무교에 비해 문화적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3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문화적 경험,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다문화경험,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자아성찰 및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화적 역량의 상관계수는 0.44점($p<.001$), 0.47점($p<.001$)으로 보통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은 0.19점($p<.05$)으로 약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4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문화적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 및 다문화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유의수준 0.05 미만) 연령, 학년, 종교를 공변수로 포함하였고, 회귀분석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497~.795로 0.1 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258~2.011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2.018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 오차항의 자기상관문제가 없었고, 잔차분석 결과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회귀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들이 자아성찰을 잘 할수록 ($\beta=0.21$, $p<.05$),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beta=0.27$,

$p<.05$)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역량의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Degree of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lti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N=148)

Variables	M±SD
Self-reflection	3.73±0.49
Self-exploration	3.76±0.63
Self-understanding	3.69±0.58
Other-exploration	3.87±0.56
Other-understanding	3.61±0.5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3±0.42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38±0.60
Prudence	3.13±0.60
Self-confidence	3.44±0.52
Systematicity	3.18±0.68
Intellectual fairness	3.70±0.53
Healthy skepticism	3.44±0.58
Objectivity	3.77±0.60
Multi cultural experience	2.46±0.45
Multi cultural exchange	1.93±0.78
Foreign experience	1.38±0.48
Domestic experience	3.04±0.83
Multi cultural education	3.90±0.52
Religious experience	2.03±0.89
Cultural competence	3.29±0.50
Cultural awareness	4.08±0.56
Cultural knowledge	2.82±0.67
Cultural sensitivity	3.91±0.64
Cultural skill	3.06±0.71
Cultural encounter	3.29±0.69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lti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N=148)

Variables	Cultural competence
	r (p)
Self-reflection	0.44 (.0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47 (.000***)
Multi cultural experience	0.19 (.021*)

* $p<.05$, ** $p<.01$, *** $p<.001$

4. 논의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역량은 간호제공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의 정도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에 3.29점이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된 Park 등 [23]의 연구보다는 다소 낮은 점수로 전공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종합병원 간호사[24] 및 간호대학생[25]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보다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문화적 역량에 가장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다문화 교육 경험[26]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Cultural Competence

(N=14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69	.40		4.19	.000***	
Age	-0.02	.01	-0.13	-1.49	.139	
Grade	2nd(vs 1st)	.07	.08	0.80	.426	
	3rd(vs 1st)	-0.10	.11	-0.08	-.92	.358
	4th(vs 1st)	-0.05	.13	-0.04	-.42	.676
Religion	Catholic(vs Christianity)	0.13	.13	0.08	0.95	.346
	Buddhism(vs Christianity)	-0.08	.20	-0.03	-0.41	.680
	None(vs Christianity)	-0.10	.08	-0.10	-1.24	.216
Self-reflection	0.21	.10	0.21	2.08	.04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32	.11	0.27	2.84	.005*	
Multi cultural experience	0.09	.09	0.08	0.99	.323	

$R^2=.31$ Adjusted $R^2=.26$, $F=6.05$, $p=.000$ ***

* $p<.05$, ** $p<.01$, *** $p<.001$

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는 모두 다문화 교과목을 수강한 자로 구성된 반면, 두 연구[24,25]에서는 다문화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동일 도구를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된 Lee[27]의 연구에서 나타난 4.11점 보다 낮은 점수이다. Lee[27]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의 총점뿐 아니라 5개의 하위 영역 모두에서 본 연구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특별히 고안된 문화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단순히 지식위주의 다문화 교육 경험을 늘리기 보다는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포함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은 5점 만점에 3.73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학생의 자아성찰을 측정된 Cho[28]의 3.73점과 동일하며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아성찰을 측정된 Hwang[16]의 연구의 3.77점과 비슷한 점수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3.43점으로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29]의 연구에서 나타난 3.6점이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0]보다 낮은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연령, 학력, 교육과정, 임상경력 및 근무환경이나 학습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7]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 중 열린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의 의견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태도인 지적공정성과 감정적,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로 결정하려는 태도인 객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타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때까지 문제에 심사숙고하는 성향인 신중성과 문제해결까지 문제의 초점 및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태도인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27]와 동일한 결과로, 간호교육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어 열린 마음으로 감정적,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가졌으나 아직까지 토론이나 토의수업 등의 부족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이나 논리에 대해 회고해보고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숙고하는 성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경험은 5점 만점에 2.46점으로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27]인 2.36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이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년,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은 25세 이상보다 20세 이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31]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학년은 2학년이 3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난 Yang[3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난다. 종교적 차이는 가톨릭이 불교나 무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종교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26]와 차이가 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연령, 학년, 종교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연령이 20세 이전이 25세 이상보다, 2학년이 3학년 보다, 가톨릭 종교를 가진 학생이 불교나 무교를 믿는 학생보다 자아성찰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회귀분석에서 연령, 학년, 종교가 문화적 역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종교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26]와 비슷한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가장 유의한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나타났다($\beta=0.27, p<.05$). 이는 유아교육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Yoon[33]의 문화적 경험, 공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력이 문화적 역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결과와 비판적 성향을 촉진하는 강의 프로그램 후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Lim의 연구결과[34]와 동일한 맥락이다. 뿐 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있으나 다문화 교육은 시간 운영, 교수학습 방법, 교사의 수업 부담 등에 있어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다문화교육의 아이디어가 필요함에 따라 Jung[35]은 국어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다문화 인식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정규교과 목표 및 다문화 교육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에서

는 융복합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다문화 교육의 목표나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와 문화적 역량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없으나 일본에서는 일본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문화적 역량의 예측 요인임을 확인하였다[36].

비판적 사고성향은 고정된 삶의 양식이나 전통적 가치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정당성을 묻고 찾음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사유능력이다. 비판적 사고 훈련으로 학생들은 다문화적 교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고 능동적이며 반성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고[34], 이는 문화적 역량을 성취하는 첫 단계인 문화적 인식의 확대 및 문화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문화적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증가할수록 비판적 사고기술, 임상수행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활용 능력, 메타인지, 의사소통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성취도 등 인지적, 기술적 측면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 태도, 동기,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의 정의적인 측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37,38]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자아성찰 또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beta=0.21, p<.05$). 자아성찰과 문화적 역량 간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자아성찰은 감성적 자기인식 능력, 정확한 자기평가 능력, 자기확신 능력 등의 감성적 능력개발과 연결되어 학습자의 분석적, 탐구적,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39,40]를 통해 지지될 수 있다. 또한, 자아성찰은 상황에 대한 자각 및 인식을 통해 탐색과 이해로 이어지는 과정으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문제해결이나 변화를 향한 방향성을 갖는다는 주장[3]과 일치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가장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26]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 모두가 다문화 교육을 1학기 이상 받은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약한 상관관계($r=0.19, p<.05$)를 나타낸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문화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직접적 영향

을 주기보다 자아성찰이나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 경험을 매개 변수로 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자아성찰은 물론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와 문화적 역량간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성찰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 교육에서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성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좀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편의 추출한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대학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을 가지며 문화적 역량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자아성찰 간의 관계를 횡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다문화 교육 전후의 자아성찰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향후 간호학 분야에서 다문화 교육과정 및 교육 방법 개선 등의 근거자료 및 교과목 융합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성찰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포함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포괄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및 다문화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문화적 경험과 문화적 역량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성찰이 문화적 역량에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해서 자아성찰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들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hinhan University Research Fund, 2016

REFERENCES

- [1] Social Immigrant Service Statistics monthly Report. 2016, March.
- [2] Campinha-Bacote J,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A model of car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12, No. 3, pp.181-184, 2002.
- [3] M. Ardel, "Wisdom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Vol. 52, No. 1, pp.15-27, 1997.
- [4] H. Choi, "Critical thinking, Multiculturalism, and the education of humanit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32, pp.293-317, 2011.
- [5] C. H. Jeong, "A study on meaning and important of critical thinking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 20, No. 1, pp.132-158. 2015.
- [6] R. H. Ennis, "A logical basis for measuring critical thinking skills". *Educational Leadership*, Vol. 43, No. 2, pp.44-48, 1985.
- [7] J. Y. Lee, S. Y. Pak,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e environment of nurs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es in local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2, pp.145-153. 2014.
- [8] M. J. Kim, T. I. Kim, Y. J. Kwon, "A study about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about immigrant women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in Chungcheong a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3, pp.1334-1344, 2014.
- [9] J. H. Kim, "A Study about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about Immigrant Wome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7, pp.305-314, 2014.
- [10] S. H. Kim,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for nursing students and its effec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580-593. 2013.
- [11]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minorityhealth.hhs.gov/templates/browse.aspx?lvl=2&lvlID=11>, September 20, 2011.
- [12] A. Clair, L. McKenry, L. Preparing, "Culturally competent practitione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8, No. 5, pp.228-234. 1999.
- [13] Y. J. Kim, J. Y. Lee, S. H. Cho, "An explorative study of perceived cultural competence of medical social worker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No. 3, pp.251-283, 2011.
- [14] S. Y. Won, J. H. Mo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its antecedent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9, No. 4, pp.143-165, 2016.
- [15] D. Y. Park, K. H. Jung, "The influence of self 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337-346, 2014.
- [16] C. K. Lee, K. J. Lee, Y. S. Park, H. K. Lee, "The effect of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337-346, 2015
- [17] Y. S. Suh, Y. C. Kwon,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415-423, 2014.
- [18] J. Y. Hwang, "The Self-reflection scale development and a path model of self-reflection to well-being", Ph.D. dissertation, p.51, Catholic University, 2011.
- [19]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04.
- [20] M. J. Ward, "The relationship of preservice teachers' cross-cultural experiences with their beliefs about teaching diverse students", Ph.D. dissertation,

- Kansas State University, 1996.
- [21] H. R. Kum,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experience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2013.
- [22] S. Y. Han, H. I. Cho Chung,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5, No. 5, pp.684-693, 2015.
- [23] S. J. Park, S. A. Kim, Y. J. Bae, S. H. Park, "A Study on multi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fields of human services for the era of fusion and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493-507, 2015.
- [24] D. Chae, Y. Park, K. Kang, T. Lee,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1, pp.76-86, 2012.
- [25] I. S. Lee, J. Y. Cho, "A study on the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283-290, 2014.
- [26] Y. H. Sungok, S. D. Park, Y. S. Lee, "A research trends o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ttitudes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Multiculture & Peace*, Vol. 7, No. 2, pp.173-203, 2013.
- [27] M. J. Lee, "Development and effect on the cultural compet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Ph.D. dissertation, pp. 1-47,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6.
- [28] M. K. Cho, "The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and self-reflection in the convergence socie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7, pp.305-313, 2015.
- [29] S. K. Cha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Vol. 18, No. 1, pp.71-78, 2011.
- [30] H. Choi, D. Cho, "Influence of nurses performance with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proc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7, No. 3, pp.265-274, 2011.
- [31] E. J. Lee, Y. K. Kim, H. K. Lee, "A study on the cultural competenc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3, No. 2, pp.178-188, 2012.
- [32] S. Y. Yang,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changes,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7, pp.334-345, 2014.
- [33] K. J. Yoon, "The Effects of cultural empath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Solving on the cultural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9, No. 3, pp.105-129, 2014.
- [34] M. J. Lim, "Transforming perspectives through critical reflection: preparing multicultural early childhood educator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15, No. 3, pp.273-296, 2014.
- [35] Y. Jung, "The effect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and critical thinking ability with korean language textbook", Master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2015.
- [36] DOI: <http://hdl.handle.net/1920/3072>
- [37] N. S. Ha, S. Y. Pak, M. J. Lee, "A literature review (1996 - 2014) on critical thinking in korean nursing education for the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341-349, 2015.
- [38] S. H. Yu, J.H. Kang,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Disposition of University Nursing Students for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6, pp.197-203, 2015.
- [39] S.Y. Lee, M. S. Youn, Y. E. Kim, "A Study on Counselor's Professional Development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rough Reflective Journal Writ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43-56, 2015.
- [40] K. J. Kim, J. Yoon, H. H. Kyoung, "Analysis of

problem based learning based on the self-reflection journals and class evalu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Vol. 16, No 4, pp.438-448. 2009.

박 소 영(Pak, So Young)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 석사)
- 2015년 2월 : 강원대학교 간호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리더십 및 참여적 의사결정, 간호윤리, 간호교육
- E-Mail : 09525@shinhan.ac.kr